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단순한 것이 답이다

학승이 질문했다.
“질문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상어(常語)가 어그러진 거야.”

問 無問時如何 師云 乖常語

선사들의 대답은 늘 평범하고 맞는 말이다. 상어(常語)는 평상시 대답이다. 상어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대답이 깨졌다는 것이다. 말없이 앉아있을 때, 상어 쪽에서 보면 대답이 깨진 것이다. 그것일 뿐이다. 그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말라. 단순한 것이 답이다. 동시에 옳은 답이다. 선은 있는 그대로 말한다. 더 이상 나가면 도의 답백함을 잃는다.

학승이 물었다.
“사방의 산이 마구 다가올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망갈 길이 없다.”

問 四山相逼時如何 師云 無出跡

지진이 일어나 사방이 무너질 때 어디로 도망치면 좋을지? 일방이 아닌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도망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때 더 이상 출로를 찾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사방의 산이 다가올 때는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예수도, 신도 어찌 못했다. 포기해야한다. 죽을

을 받아들이는 때, 죽은 순간까지 그대는 편안할 것이다.

학승이 질문했다.
“그 속에 대하여 말해도 얻지 못할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말할 수 없어.”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말해도 얻지 못한다.”

問 到者裡道不得時如何 師云 不得道 云如何道 師云 道不得處

도에 대해 묻는가? 말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면 어찌 도라 하겠는가? 행동으로 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행동으로 도가 설명되는 것이라면 어찌 일찍이 도는 형체가 없다고 했겠는가? 할[囑]로서 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입제 스님 아래에 깨달은 자들이 수없이 나와야할 것이다. 방(榜)으로 도를 알 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덕산 스님이 암두 스님의 소곤 거림에 귀가 먹지 않았을 것이다. 천하의 남자들이여! 이 때를 당하여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가? 이 질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불조의 자식이지만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다면 아직 문밖의 손님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언어는 정수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것이 정수리 바깥의 일입니까?”
스님은 사미 문원을 불렀다. 문원이 대답하자,
“오늘 이른가, 늦었는가? (산보 갈 시간이라)”

問 但有言句盡不出頂 如何是頂外事 師喚沙彌文遠 文遠應諾 師云 今日早晚也

순자는 전정을 함에 5사(五事)를 잘 갖추어야 실패가 없다고 했다. 5사는 도·천지·인·상(道天地人償)이다. 5사 중에 첫 번째가 도(道)다. 도는 천지간에 가득 찬 기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에 어긋나면 대의명분을 잃으므로 백성이 외면한다. 백성이 외면하면 그 전쟁은 지고 만다. 세속의 이치를 탐구한 병법가도 하물며 도를 최고 높은 곳에 놓고 전쟁을 치렀는데 진실을 찾는 구도자가 어찌 삶의 정수리가 되는 도를 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수리 바깥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부하다 엉뚱한 것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악한 말 하지 말게.”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莫惡口

그 분이 계신 곳은 아주 고운 모래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발자국이 남으므로 금방 알아채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대하여 입만 병국해도 죄를 범하고 만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그래서 담마에 열성적인 비구들도 명상하는 비구들도 모두 기쁘지 않게 됩니다

〈양곳따라 나카야〉

누가 역사는 진보한다 말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퇴보한다는 말일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다.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진보사관에도 퇴보사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사관을 가질 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순환사관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순환사관은 큰 틀에서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반복사관은 언제나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 그런 반복사관의 타당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오늘 주인공은 부처님이 아니라, 그의 제자 마하쥬다 존자이다.

당시 부처님 교단에는 담마(부처님 가르침)에 열성적인 비구(학승)들과 명상하는 비구(선승)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항상 험뜰기만 한다.

먼저 학승들이 선승들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 : 그들(선승)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명상가다, 우리는 명상가다”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무엇을 명상하는가? 무엇 때문에 명상하는가? 또 어떻게 명상하는가?” 선승들은 명상을 하지만, 명상의 의미나 목적을 분명히 모르고서 한다는 것이다.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스님의 말을 빌리면, 당시 선승들은 모두 암중(暗誦)선사라는 말이다.

다음, 명상을 하는 선승들이 학승들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 : 그들(학승)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담마의 열성가이다. 우리는 담마의 열성가이다.”라고 한다. 그렇지만 마음챙김이 없고 마음집중이 부족하다.

생각은 안정성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감각기관은 절제함이 없다. 과연 “무엇 때문에 담마에 열성적인가? 어떻게 담마에 열성적인가?” 학승들은 담마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만, 그 의미나 목적을 모르고서 한다는 이야기다. 보조스님의 말을 빌리면, 이런 학승들은 광혜(狂慧)를 추구할 뿐이다.

그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 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한다. 선승들은 다른 선승들을 칭찬할 뿐 학

승들을 찬탄하지 않고, 학승들 역시 다른 학승들을 칭찬할 뿐 선승들을 찬탄하지 않는다. “그래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선승들이나 학승들 “아무도 기쁘지 않게 된다.” 자리(自利)가 없다는 말이다. 그 뿐이던가. 명상과 학문의 공통목적인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도 아니게 된다.” 이타(利他) 역시 없게 된다.

마하쥬다 존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뒤 이렇게 권한다. 선승들은 학승들에 대하여, “우리는 명상가이지만 담마의 열성가들을 칭찬하겠습니다”라며 단련하라고. 왜냐하면 “심오한 뜻의 경지를 통찰지로 선명하게 꿰뚫어보는 이란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물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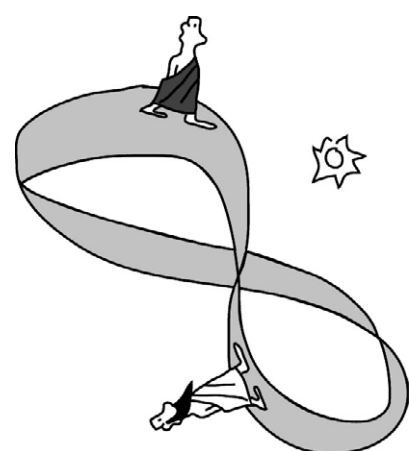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다.” 또한 학승들 역시 선승들에 대하여, “우리는 담마의 열성가이지만 명상하는 비구들을 칭찬하겠습니다”라며 단련하라고. 왜냐하면 “열반의 체험을 얻은 이러한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드물기 때문이다.”(일야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빼알리 경전》, 민족사, pp.522-523.)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불교의 역사는 이러한 두 그룹 상호간의 오해와 비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하쥬다 존자나 보조지눌스님과 같이, 두 그룹이 서로 존중하기를 역설하는 노력이 반복되어온 역사이기도 하다.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우열(優劣)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수행법의 열원이 아니라, 수행의 진위(眞僞)를 말할 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31

인과법칙...집착·혹 소멸 이론의 근거

연기설-2 연기의 구분

부처님이 연기를 설한 이유는 이 세상의 작동원리나 우주의 탄생과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苦)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연기설은 개인의 내면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는 무아와 무상을 자각하게 하고 그로 인해 영원불변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기설은 불교의 모든 교리들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연기설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인과율(因果律)에 의한 해석이다. 인과율이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에 관한 법칙이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마음의 작용이 원인이 되어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칙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중에 원인으로서의 작용을 업(業: karma)이라 하고 결과로서의 과보를 보(報: vipaka)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작용을 인과업보(因果業報)는 따로 설명한다.

두 번째는 인연화합(因緣和合)에 의한 설명이다.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의 종합

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고 선생님께 교육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에 나아가서는 동료들과 일을 도모하는 등의 모든 연기 작용의 종합이 한 인간의 존재이다. 또 한 공기의 밥을 먹어도 그 밥은 농부, 땅, 비, 햇빛, 농기구 만드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소매상, 등등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이다. 인연화합에 의해 어떤 결과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 다른 존재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작용을 상의상관성이라고 한다. 인연화합에 의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면,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언젠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과도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자연 법칙 속에서도 상의상관성은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떠나 홀로 존재한다든가 인과의 과정 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주법계(法住法界)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무조건 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인과율·인연화합·상의상관성과 같

이 일정한 법칙이 있다. 제행이 무상한 가운데 일정한 법칙이 상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법주(法住)라고 한다. 또 이러한 작용에 의해 형성된 세계를 법계(法界)라고 한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길 하지 않으시길, 이 법 [dharma]은 항상 머무르니, 법이 머무르는 곳을 법계라고 한다”라는 《잡아함경(雜阿含經)》의 유명한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출현과 상관없이 인과율·인연화합·상의상관성의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떤 연기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연기라고 불리는 인과의 법칙은 불교도가 아닌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들어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의 가르침인 것이다.

원시 경전에서 “모든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고(苦)와 고의 소멸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다. 물이 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순리이듯,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 또한 삶의 순리이기 때문에 고를 소멸하는 길로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연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존재는 인연따라 화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 고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용곡대 불교학박사 · 前 본지기자

모 심인불교대학 집 제2기생

근본불교(根本佛敎)와 기본교리(基本敎理)는 밀교사상(密敎思想)의 진리(眞理)속에 있다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남녀노소(男女老少) 누구나 환영합니다.

◆과 목 : (1) 불교의 기본교리,
(2) 밀교사상과 수행법,
(3) 만다라의 세계,
(4) 현밀(顯密)의 성불론(成佛論)

◆강 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30분

◆준 비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제출

◆등록금 : 100,000원

◆교재비 : 30,000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전화 031)692-3653 / 팩스 031)692-3654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종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기술사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기술진흥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설법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삼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회향복지원 1인1실 평생거주할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녀 20분만 평생모십니다.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원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해매는 중생이나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물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나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당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 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문의 : 회향선원 011-771-7575